

가족 계획 「세미나르」에 다녀와서

—1966, 11, 29~12, 2—

<대구 봉산병원 간호원장> 김 정 선

서태평양지구 가족계획 연명회 주최로, 개최한 홍콩 「세미나르」에 참석차 우리대로 金貞愛씨와 鄭英姬씨 湯養子씨와 필자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김포공항을 떠나 그날 오후 6시경에 동경에 도착하여 거기서 하루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羽田공항에서 일 본인 일행을 만나 오후 3시 경에 홍콩 하늘에 가까이 가니 백색의 고층 건물들이 매우 깨끗하게 보이고 산허리와 산꼭대기에 높은 건물과 주택이 많은 것은 홍콩의 특색인가 생각되었다. 「세미나르」의 순서는 대개 강연과 기관 시찰이었고 각 나라의 가족계획 실시방법은 우리나라와 같고 우리나라가 특별히 다른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였다. 그리고 「세미나르」의 주요한 목적은 세계 인구증가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될 것과 나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각 가정의 식구를 적게 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세미나르」 기간에 시찰한 곳은 아래와 같다.

(1) 보건소—가족계획사업은 각 보건소에서 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보건소들은 빈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수개소의 보건소를 시찰하였는데 설비가 잘 되어 있고 모든 일이 질서있게 되어 있으며 간호원은 자기책임을 철무절미하게 다하는 것이 보여졌다. 어떤 보건소에는 산실과 입원실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 보호자는 전혀 없게 되어 있으나 월만한 간호를 받고 있으며 간호원들은 천주교 계통 사람들이었고 병실은 매우 깨끗하였다. 또 규모가 적은 보건소에는 산모 입원실이 있으며 음식은 집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었다.

(2) 극빈자들의 지역—어떤날 오후 「세미나르」의 책임자인 Mrs. Ivy Lim이 빈민촌을 여러 곳 보여 주었다. 그들의 사는 집은 가족이 사는 집과 흡사하였고 내부는 어찌 더러운지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닷가에는 조그마한 배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 위에는 「텐트」같은 것으로 둘러막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언제나 배 위에서 산다고 한다. 혹시 특종이 붙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 바닷가로 몰리니까 위험치 않다고 한다. 저들의 인력수출을 외국에 못하느냐고 하니 문맹인이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저들의 생활은 우리나라의 빈민보다 더 비참한 것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3) 빈민의 이상촌—어느날 오후 시가에서 떨어진 산 밑으로 찾아갔다. 그 곳에는 10층 이상의 웅장한 건물이 5, 6개 여기저기 서 있어 한 부락같이 보여졌다. 안내자의 말씀이 이 건물들은 영국정부에서 극빈자를 위해 건 것이라고 하며 집안으로 안내하였다. 그 내부는 「아파트」식으로 되었는데 한층에 50세대 가량 살고 있으며 저들의 얼굴은 행복감이 넘쳐 미소를 띠었다. 중앙에 있는 건물은 기독교계통의 학교라고 하며 그 옆에 있는 건물은 탁아소라고 하는데 근 1백명의 어린이들이 있었다. 어머니들은 어린이들을 낳고 마음 놓고 직장에 나간다고 한다. 빈민전 부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건물을 짓는 중이라고 한다. 홍콩은 영국정부 통치하에 있어 특히 빈민들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빈민들이 암흑생활에서 광



<각국에서 참석한 강습회원들>

명한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즉 거룩한 인류애를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다.

(4) Floating restaurant—근 20명의 회원들이 안내자를 따라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화려한 궁전같은 집을 향해 갔다. 이 집은 생선만으로 요리하는 큰 요리집인데 의양은 2층집 같이 보이나 실은 단층집이고 모양은 중국의 고대궁전식으로 되었고 천정에는 옹과 선녀가 그려 있어 매우 화려하게 보인다. 수용력은 400명 앉을 수 있어 결혼식도 한다고 하는데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집으로 응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하다. 부자들의 지나친 사치와 흐화스러운 생활은 가난에서 우는 극빈자들과는 너무나 차가 많음을 볼 때 인간사회는 너무나 냉정하게 보여졌다. 식민지역을 시찰할 때 특히 인상깊은 것은 (a) 인류애와 봉사정신이 너무 결핍하여 때때론 땅과 같이 보여졌고 (b) 브

전간호원들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질서있게 잘 되어 있어 간호원들의 능력과 사명감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부러워할 마음이 생겼다.

일본 간호협회 방문—12월 5일 밤 10시경에 동경에 도착하여 일본간호협회 회관에서 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동협회 사무실을 찾아 전부이사 平井雅惠씨와 제 1 부회장 井上澄惠씨를 만나 친절한 안내로 회관 구경을 하고 점심에 우리 일행을 초대하므로 음식을 나누면서 일본간호협회 사업 기관 대우문제 등을 서로 이야기 하였다. 저들이 어떻게 친절히 잘 대접해 주는지 감사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간호협회 활동상황(전국적으로)

1. 대우문제

- 초급 16,500원 (중졸)
 - 19,700원 (고졸)
 - 35,400원 (10년이상경험자)
 - 73,500원 (대학교수도있음)
- 대우만 높지 모든 물가가 한국보다 배나 비싸므로 나올 것이 없다고 본다.

2. 기관

- 병원 7,000개소(전국)
- 간호학교 300개소(3년제)
- 간호학교 500개소(2년제)
- 간호대학 3개소

- 간호초대 6개소
- 공중보건간교 36개소(4년제)
- 조산학교 28개소(4년제)

3. 간호협회 신축회관

7층으로 된 아담한 건물인데 1층은 식당, 주방, 사무실, 2층은 사무실, 회의실, 도서실, 3층은 대강당이 있어 누구나 사용료를 내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 5, 6, 7층은 숙소인데 수용력이 156명, 양실과 다다미방으로 되어 있는데 방마다 세면대와 수세식 변소가 있어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4. 간호협회 조직과 활동

회원수 11,000명

조직은

(a) 일본간호협회

- { 간호부회
- (b) { 보건간호부회 (c) { 지부회
- { 조산부회 { 지부회
- { 지부회

로 되어 있어 각회원들은 ABC의 세 곳에 회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활동은 전국 간호연구학회를 해마다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학회가 간호원의 질적향상에 큰 힘이라 볼 수 있다. 각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간호원들은 고귀한 간호정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일본의 간호사업과 간호정신이 급속도로 향상된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